

#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7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8. 8. 23.(목) 14:00 ~ 16:48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 건축분과 제7차

◆ 일시 : 2018. 8. 23.(목) 14:00 ~ 16:48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자 (7명)

위원장 :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배석자 : 000 팀장, 000 팀장, 000 주무관

◆ 심의안건 (총 9건)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1)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심의(1)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심의(3)
-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 사전심의(1)
-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심의(1)
- 용양봉저정 복원 및 주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1)

(개의)

#### ○ 000 팀장

안녕하세요. 시문화재관리팀장 000입니다.

오늘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회의자료에 상정된 안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의가 7건, 보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안건으로 홍지문 및 탕춘대성 보수정비 공사.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심의 안건으로 약사사 삼층석탑 출입문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심의가 3건으로,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지역 내 기단 및 배수로 공사, 그리고 잠실 뽕나무 보존지역 내 신축공사, 그다음에 장교동 한규설 가옥 보존지역 내 증축 건 이렇게 3건입니다. 네 번째, 국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 사전심의가 1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대한 사전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심의 건으로 서울시 지정문화재 적정성 검토대상 138건 중 69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4건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양봉저정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는 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지난달은 우리가 쉬었고 이번 여름 너무나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용역관계자 등 입장)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담당자

안녕하세요.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탕춘대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탕춘대성이 서울시 지정문화재인데요. 붕괴되고 노후되고 위험 구간이 많이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보수정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요.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계자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관계자1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전문가 자문내용, 보수정비 설계계획(안)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사업구간은 탕춘대성 구간 중에 상명대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상명대 구간이 사업구간이 되었고, 크게 사업내용으로는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붕괴구간 성벽을 정비하는 부분이 두 군데, 그리고 성벽 단절구간에 대한 정비 한 군데,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수조 철거하는 부분, 그리고 내탁부 지형정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구간으로 나뉘지게 됐습니다.  
2018년 6월 14일자에 000 위원님 통해서 현장 자문을 실시했는데, 그때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해주신 자문내용은 대부분 반영 처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황조사 내용입니다. 먼저 내탁부 지형정비는 사진을 보시는 부분이 성벽 안쪽인데 상단 쪽으로 여장지대석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 위에까지 지형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삭토로 인해서 지반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깎여 있고, 아래쪽은 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상명대 구역 중 제일 종점구간으로서 기존부터 계속 붕괴가 유지되어 있던 구간으로 금회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상명여고 뒤편으로, 붕괴돼서 금회 긴급보수로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절구간은 상명대 쪽에서 올레길 통하는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길인데 좌우 붕괴 면이 불안해서 이 부분도 정비하는 것으로 금회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수조인데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미관상 안 좋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설계계획안입니다. 내탁부 정비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여장지대석이 노출되어 있고 하부 쪽으로 지형이 삭토되어 있는 부분을 지형복원을 하면서 상부는 향후 회곽로 정비를 감안해서 충분히 폭을 두고 평지구간을 두고 나머지는 경사처리를 해서 잔디 식재해서 녹화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절성벽 정비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부분이 통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좌우로 붕괴된 성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붕괴 우려가 있고, 이 앞에 폐사목들도 근처에 있어서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서 폐사목을 처리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한 성벽들은 해체 후 계단식으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벽정비 1구간입니다. 현재 하부 쪽으로 보면 성벽이 유실되어 있고 상부는 잔돌들만 남아있는 상태로 현재 유지되어 있고, 붕괴구간 및 하부 잔돌구간은 전체를 다 해체한 후에 하부 잔돌구간까지 성벽 높이에 맞춰서 원 성벽석과 동일한 석재로 축성을 하고 상부 여장 일부 남아있는 구간은 높이를 맞춰서 여장 한두 단 정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장 상부 마감은 생석회모르타르로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구간의 단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잔돌로만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해체를 하고 성벽과 동일한 형태의 돌로 면석을 축조하고 뒤에 포천석도 맞춰서 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상부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장 두 단 정도, 지대석에서 한 단 정도 정비하고 상부는 강회몰탈로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성벽정비 2구간입니다. 2구간은 상명여고 뒤쪽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이 붕괴되면서 붕괴 영향으로 밀려나와 있는 부분 까지도 일부 해체를 같이 하고, 해체 부분과 붕괴된 구간 동일하게 기존에 남아있는 형태 그대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하부 붕괴되면서 흙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다짐을 하부 기초를 해서 하부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2구간은 현재 뒤에 상명여고에서 쓰고 있는 부지가 계단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철거해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계단 부분까지만 철거를 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정비를 하게 되겠고, 현재 이 뒷면은 견치석 축으로 기존에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금회 정비하는 구간에서는 견치석 축도 철거하고 포천석을 면마감 석축쌓기 방식으로 정비해서 뒷면이 견치석 축이 없이 포천 석축으로 마감되도록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콘크리트 수조는 보시는 바와 같고, 전체를 철거하고 하부 기초 부분까지 전체를 철거한 후에 철거하고 남은 토사는 성토다짐을 하고 사후에 잔디식재를 해서 지형복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사업구간 전체적인 잡목제거 내용입니다. 잡목제거는 성벽에 붙어서 자생하고 있는 넝쿨 및 초화, 관목류들이 상당히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일부 성벽 정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성벽 좌우로도 일부 구간은 잡목만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성벽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나무들의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향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8,500 정도 되겠고, 이번에 상명여고 후면만 긴급정비로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몇 개 구간이 붕괴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크게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000 위원

돌을 어디서 갖다 써요?

○ 용역관계자1

대부분 석재는 기존 붕괴된 석재를 수습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부족분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대해서는 일부만,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입되는 부분은 최소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000 위원

9페이지 단면도 잠깐만 볼게요. 맨 하부석재하고 경사되어 있는 부분하고의 관계가 너무 작아서 괜찮을까요? 거기에 단면도가 덜 그려진, 그러니까 잡석이나 이런 거나 더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되게 낮아 보이는데 괜찮은가요?

○ 용역관계자1

앞에 급경사고 단면은 더 길게 내려오면 앞으로 쪽 내려와서 하부에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하부 쪽에는 현장에서 봤을 때 하부 지반에 기초석재들이 일단 있어서 그것 자체가 내려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앞 성토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경사면 자체가 심해서 앞 성토를 하게 되면 앞쪽에도 추가 석축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 000 위원

아니면 그 면적의 기울기를 저렇게 수직으로... 그런데 저기가 구조적으로 괜찮을 건지. 앞에 있는 곳이 경사가 너무 심하고 거기가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용역관계자1

이 부분에 대한 기울기는 잔존성벽에 대한 조사를 해서, 탕춘대성 성벽 자체가 돌이 크고 성벽이 높지가 않아서 여타 지역에 있는 성벽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수직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고, 일단 그 구조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경사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한 거고, 앞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000 위원

8페이지에 계획 입면전개도 가보시면 윗면은 비탈면에 안 맞추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밑에는 온전한 것 그것은 비탈길에 맞춰져 있는데, 그 나머지 공사구간은 어떻게 레벨을 해요? 미끄러짐이 없나요? 기울기가



3m 정도 되는데.

○ 용역관계자1

일단 성벽 축조방식 자체가 경사가 있는 데는 돌이 뉘어진 부분도 보이지만 대부분 다 계단식으로 올라와 있는 형태고, 이 부분도 하부 석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큰 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형태로 축성을 할 거고, 하부 쪽에서 일단은 받치고 있는 석재가 있고 이쪽이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 석축이 되는 부분이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쪽으로 하중에 의한 이쪽 끄트머리 붕괴가 우려가 되는,

○ 000 위원

이미 있을 것 아니에요. 위만 훼손돼서.

○ 용역관계자1

예.

○ 000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려고 도면이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끝인 건지, 2019년 사업이 시행될 거니까 한 번 더 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용역관계자1

일단은 이 PT 내용은 계획안이고 부가적인 첨부 도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 자체는 여기에서 크게 바뀌거나 더 추가되는 건,

○ 000 위원

사업내용은 괜찮은데, 예컨대 쌓기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계획 입면전개도에 보면 스케일이 작으니까 쌓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디지털 입면도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상태로 끝인 건가요?

○ 000 주무관

성벽이 무너져서 이번에 긴급보수를 하겠다고 한양도성도감과에서 관리를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하고 있는데,

○ 000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심의 내용 중에서 이 도면이 나중에 또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사업내용만 확인하는 거예요?

○ 000 주무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긴급보수 하겠다는 겁니다.

○ 000 위원

그것만 중요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오나요?

○ 000 주무관

따로 또 받으실 거죠?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담당자

원래 예정은 이 설계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다 받고요. 그중에 올해 긴급한 부분만, 상명여고 부분만,

○ 000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 심의도 다시는 안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담당자

예.

○ 000 위원

그런데 저것은 쌓기방식하고 이런 게 디테일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표시도 어떤 것은 기존에 있는 석재를 수습해서 쓰고 어떤 것은 새로운 석재를 쓰는지 입면전개도가 있어야지, 저 상태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000 위원

지금 질문하시는 것 조금 보완하면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예를 들면 붕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괴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새로 쌓는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서로 돌이 맞물리면서 쌓아지는가에 대한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을 피해서 거기다가 그 모양대로 쌓아올린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용역관계자1

설명을 드리면 붕괴된 위에 바로 쌓는 게 아니고 영향받는 부분까지 추가 해체를 하고 쌓는 부분에서 계단식으로 물려서,

○ 000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거고, 저희는 도면으로써. 아까 수습하신 거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부분은 수습해서 쓰고 어느 부분은 새로운 돌이고 어떻게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담당자

그러면 저희가 긴급보수 건은 먼저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완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 000 팀장

내년 예산은 따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죠?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담당자

지금 2억 8,500 중에 올해 8,000 시행하면 내년 예산이 2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 000 위원

그런데 저렇게 훼손된 게 인위적인 거예요, 아니면 배수구 문제예요, 아니면 근처의 나무 때문에 그래요? 그 판단을 하셔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 용역관계자1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은 아니고, 아까 단절구간 같은 경우도 현재 탐방로로 사용을 해서 지반은 탐방로 사용 때문에 단단해졌지만 붕괴 자체는 인위적으로 붕괴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 보시면 제일 레벨이 낮아서 물이 모이는 구간에서, 사실 붕괴구간에 대해서 붕괴…,

○ 000 위원

그러면 배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갖다 쌓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 비탈이라든가 그런 데 배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계획도면이 있어야 하지 않나. 원형 보존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해소도 할 정도의 그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근처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 용역관계자1

말씀드린 대로 주변 잡목은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선 제거를 하고,

○ 000 위원

큰 나무도 있던데.

○ 용역관계자1

큰 나무들은 별도 사업을…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담당자

별도로 유해수목 정비라고 해서요 유해수목을 골라서 별도로,

○ 000 위원

이게 무슨 별도예요, 같은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 별도로 하고 다음에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설계도도 아니고 개념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야, 현장에서 결정하는 문제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을 높이려면 조금 상세한 information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000 위원

그럼 오늘 심의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정리하시죠. 오늘은 긴급사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안에 관해서만 확인을 했다.

○ 000 주무관

사실 그 취지로 올라온 겁니다.

○ 000 위원

예.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올린다.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담당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용역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

석공사가 제일 그렇죠? 도면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목공사 같으면 도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 000 위원

그리고 기울기나 아까 배수로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 000 위원

저 상태로 그냥 둔다는 것은 나중에 위험해요. 저분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단면도나 이런 것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보시죠.

○ 000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2번 내탁부 정비구간 이것만.

○ 000 위원

긴급보수. 무너진 것만 하는데, 배수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라고 하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주무관

긴급보수는 가결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 000 위원장

그것은 내년에 다시. 그러면 내탁부 정비구간은 통과합니까 아니면. 위원 한두 분이 가서 공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도면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이 단면도가 진짜 맞는지도 모르겠고.

○ 000 위원

자문하셨던 분이 가서 검토하시면 안 되나요?

○ 000 위원

이거 한 건 처음 보는 거고 처음에 조사할 때 갔었는데, 그때도 무너진 그 부분만 긴급으로 한다 해서 갔었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러면 000 위원님이 공사 중간에 가서 체크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처리하겠습니다.

(용역관계자 등 입장)

○ 강서구청 담당자

안녕하세요. 강서구청 문화체육과의 000입니다. 이번에 개화산 약사사 석축 보수정비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약사사에는 약사사 삼층석탑이라고 문화재가 있어서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석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 심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용역관계자2

개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약사사 삼층석탑과 석불이 있습니다. 석축을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보수의 내용은 기존에 견치석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석축이 토사 유입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석축을 보수하고 미관상 다른 방식의 석축으로 보수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대응전 후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면 쪽에 활용도가 없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활용도가 있는 오픈 공간을 만들어서 불자나 사찰을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활용도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문이 있는데 정문이 기존 담장과 정문의 높이 때문에 시각적 마찰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약사사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응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대응전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정문 보수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삼층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고요. 저희가 보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석축이 2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2m 정도의 구간만 석축을 보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공터를 활용도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세 번째, 정문 보수입니다. 기존 현황은 견치석 석축과 옛날에 시멘트 담장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미관상 해치기도 하고 많은 균열이 있어서 붕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이런 공간에서 말씀드린 야외공간을 만드는 형식이구요. 보수할 m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계신 주지스님께서 담장의 높이를 낮추고 싶어 하셔서 기존의 높이보다는 좀 더 낮은 높이로 일정하게 간격을 나눠서 설계하게 됐습니다. 기존 단면도이구요. 시멘트 담장을 화강석, 외편담장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형태로 담장을 형성했구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뒤에 공터 부분인데, 기존 레벨보다 3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도가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이 부분은 3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을 형성했구요. 계단의 목적만이 아니라 앉아서 쉴 수 있게 폭을 400 정도 형성해서 거기에서 앉아서 쉴 수 있고, 산석벤치를 형성해서 각종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3m가 차이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석축과 비슷하게 화강석과 외편담장을 형성하였습니다. 단면도이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벤치 같은 경우에 약사사 주변에 산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석을 가공해서 산석벤치 두 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외편담장을 형성해서 담장과 벤치를 같이 형성했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 자연적으로 고르지 않게 계단이 되어 있어서 내려올 때 위험성을 느끼기도 해서 그 부분을 고르게 화강석 계단석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정도의 폭을 형성해서 단순히 계단만이 아니라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현황인데요. 기존 현장은 기둥이 있고 이쪽이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가는 길에 담장 높이가 다르기도 하고 기존 대문이 너무 낙후해서 이 대문을 바꾸고 정문의 높이를 맞추는 미관



작업을 계획하였고요. 평면도와 단면도입니다.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담장을 낮추려고 하다가 기존 담장의 높이까지만 기둥을 자르고 처음 말씀드린 처음에 사찰에 진입할 시 대응전을 느낄 수 있게 그 옆에다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쪽문을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계단이 40cm 길이면 사람이 짹짹 걸을 것 같은데, 걸어보셨어요? 40cm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저게 걷는 폭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 용역관계자2

원래 걷는 폭은 280을 잡고 계단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 000 위원

저것은 보행용이 아니라 앉아 있는 용이죠?

○ 용역관계자2

주목적이 보행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요, 만약 위험성이나 불편성이 있으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일반 계단의 높이와 폭을 형성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견치석에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화강판석을 중간에 끼워서. 그런데 그게 접착이 잘 될까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본드 스트랩스가. 제일 높은 게 3m 되는 것도 있던데. 그거 똑 떨어지면 그냥 다 자빠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간 중간에 철물이라든가 해서 나뭇대로 붙어있어야 위에 있는 담장이 있지, 그냥 건축가가 그림 그려서 온전하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견치석 그대로 유지하고 붙이려면 새 설치구간에 본드 스트랩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판석을 저렇게 붙여서 하는 게 조금 촌스러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번들번들하고. 저런 담장을 본 적도 없고.

○ 000 위원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설계사무소가 어디예요? 문화재 보수업체예요?

○ 용역관계자2

아닙니다. 저는 개인설계사입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설계를 왜, 문화재면 문화재 보수업체가 설계해야지. 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 강서구청 담당자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주변에 있는 석축을 보수하는 거라 꼭 문화재 담당 지정 업체나 이런 것을,

○ 000 위원장

그런데 문화재 지원예산 가지고 할 거 아니예요.

○ 강서구청 담당자

저희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이 따로 나오는데 대응전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000 위원장

공사는 사찰 자체가 아니라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 강서구청 담당자

예.

○ 000 위원

보수도 문화재 수리업체가 아니라 일반 업체가 할 거예요?

○ 강서구청 담당자

문화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업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누가 할 거예요?

○ 강서구청 담당자

이것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에요, 사찰에서.

○ 000 위원

문화재 업체가 아니고 일반 업체에서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치석이 안 좋아서 석축을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판석을 붙이는 걸 본 적도 없고 뭐가 이상하다니까. 우리 문화재 경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석축에 판석을 붙이고 이런 방식은 없다니까. 전통이면 전통석축을 쌓든지. 말도 안 돼요.

○ 용역관계자2

초반에는 원래 여기가 복도폭이 너무 좁아서 말씀드린 통석을 쌓는 성벽 쌓기로 했는데, 쌓아보니까 너무 폭이 좁아서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찾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000 위원

그림으로는 되는데 이게 붙어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000 위원

이 공사비가 그러니까 사찰 측에서 대는 게 아니라 국가 돈이 들어가는 거죠?

○ 000 주무관

국비도 들어가고 자비도 들어갑니다.

○ 000 위원

말은 보수정비인데요. 첫 번째는 긴급성을 제가 캐치를 못했고요.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긴급성에 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얼마나 긴급한지. 두 번째로는 담장의 높이를 설명하면서 뭐라





고 하셨다면, 주지스님의 의견이다. 설계사 측이 판단하거나 역사와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만저만 해야 한다 라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게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안 드리겠는데, 국가 돈을 쓰고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주지스님의 의견대로 높이를 설정해야 하는가. 그대로 해도 좋아요, 이 높이대로. 하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듣기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도면상에서 석축이 정비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명확하게 이 배치도상에서 표현이 안 돼서, 랜덤하게만 되어 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수할 건지 그게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당 있잖아요. 이거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보아하니까 공연장 비슷한 거나 법석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주위에 있는 산하고 열려있었거든요. 거기에 담장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것을 국가 돈을 써서 왜 해줘야 하지? 저게 보수인가? 신설인가? 저 계단은 보수가 아니죠, 신설이지. 그것에 관해서 제가 지금 국비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통적이나 뭐냐 얘기가 되어야지, 저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한 것을 캐치를 못하겠어요.

○ 000 위원

코끼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약사사

저는 약사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무실장입니다.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의뢰를 해서 이쪽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석축을 보수하는 이유는 산중이기 때문에 강압이라든가 토사, 홍수나 이런 게 났을 때 토사가 유입돼서 사찰의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담을 좀 높여서 하는데, 지금 콘크리트 있는 그것은 일본식에다가 우리 전통사찰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왜 고쳐야 하는가는 중요한 것은 토사가 유입되면서 조금씩 붕괴되는 조짐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돈이 70%인가가 들어가고 25%가 저희 사찰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 계단 말씀드린 것은



계단의 역할도 있지만 노보살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어린이법회하고 그 쪽에다 설치해서 그쪽에서 활동도 하려고 했던 계획이고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프로브가 된 경비에 즈음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 000 위원

그러니까 그 마당을 법석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수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라고 하지.

○ 약사사

보수는 뭐냐면 여기가 올라가는 데 문제가 있어서, 돌로 다 되어 있어서 노보살들이나 어린이들이 올라갈 때 다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쪽으로 변경하면서 한 거예요. 올라가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쪽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을 넓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게 취지였고요.

○ 000 위원

아무튼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것으로는 시급성을 알 수 있는 이미지나 설명이 적었기 때문에 시급함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부분에 관해서 설계사 측에 이만저만한 사유를 대주세요. 지형 때문이든지 전통 사찰의 어떤 이유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죠.

○ 000 위원

아까 000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석축 쌓는 게 높이가 5m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뿐만 아니라,

○ 000 위원

옹벽이 안 돼요. 왜냐면 철근이 밑에 이렇게 되면 T자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좁아지니까 안 한다 그러는데 저것은 해보세요. 사고 나요.

○ 000 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죠? 배치도에서.



- 용역관계자2  
이 부분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광장인가요, 뒷광장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석축단으로 쌓아서 해야  
구성이 되죠. 조금만 1m만 더 빼서 화단도, 석대도 만들고 해서 위압감을  
좀 줄여야 구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광장이 얼마나 중  
요한지 모르겠지만.
- 000 위원  
13페이지 펴보세요. 저게 현실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겠냐고, 설계자 입장  
에서. 시공이 되겠어요?
- 000 위원장  
대웅전 추녀하고 거의 만나겠네.
- 000 위원  
대웅전하高的 높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용역관계자2  
이렇게 올리게 되면 대웅전보다 조금 낮습니다.
- 000 위원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수치로 말씀해주셔야지.
- 000 위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압감을 느껴서 거기 앉아 있는 그 자체만  
으로 불안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구배도 전혀 없죠. 수직으로 올라갔잖아요.



○ 000 위원장

높은 단은 새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건축계획적인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렇게 선을 그어서 그게 계단,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조경도 넣고 대응전 쪽도 셋백해서 좋게 해야지,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문화재가 아닌 것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축사가 아이디어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 약사사

그것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 거고요. 아까 그러면 올라가는 데 거기만 보수하면 될까요?

○ 000 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계단을 짝 해놨는데, 그게 경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능도 제대로 못해요.

○ 약사사

경축일 날 밥을 먹는 과정에서 바닥에 앉아 있고 돌에 걸터앉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생각이 그런 큰 행사할 때 편하게 앉아서 밥이라도 먹자 그런 의미도 있고, 노보살들이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어린이들이 뭐 그런 거였어요.

○ 000 위원

질문은 그만하고 저희들 심의하죠.

○ 000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처가 강서구청이 됩니까, 사찰이 됩니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요. 문광부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찰에서 업자 선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강서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도면이 저렇게 됐는지.

○ 000 위원

저게 불안하고 외형적으로도 안 좋고.

○ 000 위원

저 정도 예산이면 오히려 들어가는 문을 바꾸는 것이 더 급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문화재를 하시는 분의 시각이 필요한데, 000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큰 시각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거 주는 대로 도면을 그려서. 저희가 그렇다고 설계사를 바꿔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 000 위원

부결을 하고 다시 받아보는 것으로 하시죠. 전체적으로 재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북구청 담당자 입장)

○ 성북구청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00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치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경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극락보전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보호되고 있고요. 금동관음보살좌상 주변으로 배수로 및 기단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극락보전이고요. 극락보전 주변으로 배수로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일부 박리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깨진 부분, 들뜬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화강판석으로 교체되어 있었는데 줄눈 등이 많이 파손되어서 우수 등이 있을 때 침투가 되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콘크리트를 다  
걸어내고 기존에 있는 화강판석과 동일하게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은 2,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기단 상면을 콘크리트 마감을 제거하고 마사토 다짐으로 바꾸는 것으로?

○ 성복구청 담당자

다짐하고, 화강판석으로 최종,

○ 000 위원

주변이 다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  
래서 깨져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내용은 그거예요.

○ 000 위원

도면은 안 그리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 성복구청 담당자

이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별도의 설계용역을 하기 어려워서 저희 자체 설  
계를 합니다.

○ 000 위원

그게 추후에, 이게 도면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도면하고  
이게 앞뒤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북사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  
요. 그 도면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 성복구청 담당자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 도면 안 바꾸실 거냐고요.

○ 성복구청 담당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공사가 끝나면 중간 도면을 만들 겁니다.

○ 000 위원

그래서 나중에 교체해주실 거예요?

○ 성북구청 담당자

예.

○ 000 위원

그 이력관리를 구에서 잘 하셔야 돼요.

○ 000 위원

왜냐면 나중에 크게 보수할 때 보면 도면이 앞뒤가 안 맞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성북구청 담당자

예.

○ 000 위원

중간에 격면 보수한 것들은 다 빼고 옛날 도면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 성북구청 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청 담당자 퇴장)

○ 000 위원

그 도면을 남겨놓으라는 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 000 위원  
아닙니다.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도면 갖고 오라 그러면 중간 보수한 것들 쪽 빼먹고 몇 년 전에 것 가져오고.
- 000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도면이 앞뒤가 안 맞아요.
- 000 주무관  
조건부 가결하고 준공 이후 도면 제출해서 보관토록 한다.
- 000 위원  
누가 보관해요?
- 000 주무관  
해당 구청하고 경국사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 000 위원  
아무튼 기록이라도 남겨두세요. 나중에 추적해서, 누군가는 갖고 있겠죠.
- 000 팀장  
끝나면 준공도면을 시로도 한 부 해서 우리 보전관리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 000 주무관  
예.

(용역관계자 등 입장)

- 서초구청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에서 이번에 잠실 뽕나무 주변 신반포16차아파트 주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상변경 심의 신청을 했고요. 뽕나무가 있는 자리를 재건축정비사업을 하시게 되면 경관이 좋아 보이게끔 지금 일자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부분을 뒤쪽에도 다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자료에는 기념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발표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건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 ○ 용역관계자3

안녕하십니까. 시지정기념물 1호 잠실 뽕나무에 관한 현상변경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은 문화재에 관한 간략한 사업 개요, 향후 건축계획(안)과 문화재 보존방안에 관한 제안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건은 신반포16차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잠실 뽕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실 뽕나무는 수고 2.2m, 둘레 1.4m로 1970년대 초까지는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죽어서 고사목이 되어 가치를 상실한 이후 시지정기념물이 되었습니다. 1983년에 아파트를 건축하며 잠사회에서 이 뽕나무 주변에다가 뽕나무를 심어서 현재 상태는 잠사회에서 심은 뽕나무가 잠실 뽕나무를 차폐한 상태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고사목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잠실 뽕나무의 현재 상황입니다. 잠원로 방향에서 바라본 잠실 뽕나무의 모습과 항공에서 찍은 사진 모습입니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잠실 뽕나무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잠실 뽕나무가 위치한 신반포16차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외관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부는 훨씬 더 노후된 상태입니다. 오래된 배관으로 녹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동파가 자주 되며 누수도 잦고 배관을 통해서 쥐가 집에서 출몰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에 재건축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정비계획 절차가 진행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 중에 문화재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 오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잠실 뽕나무는 사대문 밖에 소재한 시지정기념물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 지표에서 높이 7.5m를 기준하여 양각 27도 이내 건축행위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본 사업 대상지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고시된 허용기준을 보면 잠실 뽕나무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범위가 현상변경허용기준 심의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양각 기준을 보면 현 아파트도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맞은편에 있는 미주파스텔도 50m 이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주파스텔 아파트는 2002년에 준공되었고 18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 사업지에 대해서 양각 적용을 받는다면 보시다시피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기존 조합원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양각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재건축을 진행하면서도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과 문화재 모두를 만족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 299%로 기존의 조합원 세대수는 396세대입니다. 이 중에 임대 17세대, 분양 18세대로 현재는 414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기존 조합원들을 그대로 입주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분양이 적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건축될 것입니다. 주변에 조화를 이루고 잠실 뽕나무의 위치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건축물은 높아졌지만 주변 건축물 사이로 뽕나무 모습을 볼 수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조감도가 완성되기까지 6개월간 수많은 회의와 고심을 거쳐서 본 사업의 내용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문화재 보존과 홍보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잠실 뽕나무의 보존과 홍보방안은 먼저 문화재를 고려한 건축설계, 건축 시 문화재 보존방안, 사업 후 홍보방안까지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축설계에서부터 잠실 뽕나무를 위해 건축물을 설계변경을 하고 건축 시에도 보존방안을 고려하여 건축하며, 사업 후에는 홍보방안까지 모색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잠원동 및 재건축 단지 내에 잠실 뽕나무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와 잠실 뽕나무의 위치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에 막혀서 잠실 뽕나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되어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있습니다. 이 설계(안)은 저희가 처음 정비계획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나온 최초 계획(안)입니다. 최초는 33층 6개 동으로 계획을 했고, 뽕나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나중에 인지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강 조망을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단지 설계를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문화콘텐츠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많은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안)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느 쪽에서도 뽕나무를 보실 수 있고, 한강으로 열린 조망을 뽕나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동의 배치도 달리하여 뽕나무가 단지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이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뽕나무 중심으로 설계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잠실 뽕나무로부터 11m 뒤편에 현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후에는 경계로부터 약 20m까지 건축물이 이격될 예정입니다. 주변부는 자연스럽게 뽕나무 공원화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문화재를 단지 박제화하여 보존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끝에 내린 설계(안)입니다. 뽕나무와 인접한 주동에는 선큰을 조성해서 열린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에 아파트 담장 및 현황 건물이 연접하여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 후에 문화재 주변 예시도입니다. 고층 건물이 문화재를 왜소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감도를 보시면 각 건물은 필로티로 1층을 조성하여서 어디에서나 잠실 뽕나무를 볼 수 있고 통풍에도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야간조명으로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시공하는 중에서도 뽕나무가 건재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부터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뽕나무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 시에는 보호구역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에는 뽕나무 사진을 활용해서 잠실 뽕나무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뽕나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하공간의 토심 계획도 따로 수립했습니다. 관련법상에는 토심이 1.2m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나, 저희는 뽕나무 하부에 지하구조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사업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점 중의 하나가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홍보하여 문화재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문화재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표지판부터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잠실아파트 단지에서 한강으로 가는 현재 모

##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습입니다. 잠원 한강공원에 뽕나무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단지 서측의 한강공원 진출입로에 뽕나무 가로수를 심어서 잠실 뽕나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아파트에 뽕나무의 상징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서측에 잠원, 한강공원, 진출입로까지 뽕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고 지역에서 뽕나무의 역사와 상징성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제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계획(안)대로 조성이 된다면 아파트에서부터 한강공원에 이르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뽕나무 문화체험벨트가 조성될 것입니다. 아파트 중심부에 위치한 잠실 뽕나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단지 서측에 조성되는 뽕나무 가로를 통해서 뽕나무 및 잠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며, 잠원한강공원에 위치한 잠원나루터에 연계하고 자연학습장에 누에생태체험을 통해서 문화재를 더욱 알리도록 힘을 쓸 계획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호수를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잠실 뽕나무와 함께 서울시지정기념물로 되어 있는 화양동 느티나무 사례입니다. 잠실 뽕나무와는 다르게 화양동 느티나무는 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 000 위원

그 사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 용역관계자3

알겠습니다. 보호수 사례는 넘기겠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인지성이 부족했는데, 저희 단지에서 이번에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뽕나무에 대한 보존방안을 수립해서 문화재가 건축물과 조화되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뽕나무에 대한 역사성 및 상징성 제고를 통해서 지역 주민 및 서울 일반시민에게도 문화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사회에서 보낸 의견서입니다. 대한잠사회 측과 함께 의견서를 논의하였고, 잠사회 측에서도 본 계획(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고 향후 문화체험벨트가 조성이 되면 한강공원의 누에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잠사회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8쪽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게 예전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우측에 있는 게 앞으로 시행하게 될 섹션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아파트  
층고가 몇 m였고 지금 계획하신 것은 아파트 층고가 몇 m인가요?

○ 용역관계자3

2.7m이고요. 지금은 3m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11F, 15F가 같은 등가는 아닌 거군요.

○ 용역관계자3

그것도 그렇지만 섹션을 보시면 A-A'는 정면으로 한 거고요.

○ 000 위원

예. 층고 높이만 알고 싶어서요. 이해했습니다.

○ 000 위원

뽕나무 체험벨트는 예시인 거죠?

○ 용역관계자4

예시(안)으로 계획을 했고요. 잠사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  
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 000 위원

잠원역에 내려도 다 있잖아요. 잠원역에 잔뜩 붙어있는데 그것과 뭐가 다  
를지가 걱정도 되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용역관계자4

잠원역 쪽에서도 뽕나무가 심겨 있고 거기에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단지 내에서는 문화재 시지정기념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징성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000 위원

필로티는 높이가 얼마예요?

○ 용역관계자4

5.8m입니다.

○ 000 위원

햇빛에 가리는 게 거의 없습니까?

○ 용역관계자4

남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일조상에는.

○ 000 위원

근데 실제 뽕나무는 고사가 없단 말이에요. 대체목만 옆에 심어 놓으면 되니까요.

○ 000 위원

어쨌든 대체목이 잘 살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용역관계자3

일조분석은 첨부를 해서 넣었고요.

○ 000 위원

근데 나무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고 지표면에는 1m 내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근처에 우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논의에 앞서 팀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게 왜 건축분과로 들어오죠?

○ 000 주무관

이게 왜냐면 기념물이긴 하지만 지어지는 게 건축물이잖아요.

○ 000 팀장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주무관

왜냐면 기념물 분과에 가면 또 어차피 건축분과에서 다루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 000 위원

아니, 그러면 주변에 모든 집 짓는 것은 다 건축분과로 들어와요?

○ 000 주무관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고 있죠.

○ 000 팀장

기념물 분과는 건축물 심의 없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 기준과 달라요.

○ 000 팀장

서울시는 조례로 있습니다.

○ 000 위원

아니, 우리가 주변에 짓는 건축에 대해서는 알지만 저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 나무에 영향이 있는지 안 가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비전문가잖아.

○ 000 주무관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 000 위원

아니, 그걸 모르잖아. 그 생물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식물전문가가 아는 거지.

○ 000 위원

아니면 합동으로 여시든가.

○ 000 위원

식생에 관련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 000 위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합동분과로 해요.

○ 000 위원

예를 들어서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도래지다. 주변에 아파트 짓는지 안 짓는지는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철새한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문화재는 그건데.

○ 000 위원

도로에 우수관이라든가 이쪽 단면도랑 다 해서 있어야지 그게 나름대로 저 나무가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보도블록에 하는 것도 투수성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쪽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양각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정보만 가지고 yes/no만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 000 팀장

예전에는 건축분과에 조경이 계셨는데 지금은 기념물분과로 넘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경 관련된 것은 보완하시면 기념물분과 위원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 000 위원

기념물분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합동분과를 하든지 기념물 분과에서 하든지.

○ 000 팀장

통합을 하시든가 구분을 해야죠. 여기 위원도 아닌 분이 여기 와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 000 팀장

다른 분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산분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역사성이 있는 것들은 기념물분과 위원이 조사하고 같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000 팀장

그것은 조사하시고 의견을 내는 거지, 여기서 같이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000 팀장

심의하지는 않고 의견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례에 합동분과라든지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대체목 심은 것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컸어요?

○ 용역관계자4

86년도에 잠사회에서 심었고요.

○ 000 위원

대체목을 86년도에 심었다? 그러면 몇 주나 심었어요?

○ 용역관계자4

일단은 가운데 보시는 이 나무 한 주가 심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크고, 조그만 나무들이 두세 그루 정도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로수를 몇 그루나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 용역관계자4

정확하게 수량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수량하고 수종하고는 잠사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뽕나무가 오디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수상이라고 해서 조경용 뽕나무가 따로 있다고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같이 심고, 안내표지판에 그런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 000 위원

안내표지판이 저렇게 많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 용역관계자4

이게 일단 예시로 집어넣은 것이긴 합니다.

○ 000 위원

문화재 심의 받는다고 뽕나무 고사목 하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뽕나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고사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저런 안내표지판을 세워놓으면 죽은 뽕나무보다 안내판이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뽕나무 자체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에 돌 정도로 해서 하나 놔두고 의미를 주면 되지, 저 앞에다가 저런 거 해서 나무 가릴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 서초구청 담당자

현재도 지금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크기의 안내판이 하나 설치되는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무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뽕나무에 목매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000 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용역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

제가 볼 때 기존부터 양각은 벗어나있는 거고 새로 짓는 것도 물론 더 높이 짓는 거고, 이것은 고사목이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1986년도에 대체목을 심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32년뿐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 000 위원

000 교수님 말씀대로 조경전문가 자문을 붙이든지 이렇게...

○ 000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조경가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는지.

○ 000 위원

대체목이 아니라 고사목이 기념물이에요? 고사목이 기념물이면...

○ 000 위원

조경 전문가가 아니고 기념물 전문가가 자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너무 깊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지네요.

○ 000 위원

제 생각에는 가로수를 뽕나무에 하는 것은 조경 쪽에 자문을 한 번 받으라고 하고, 이 상태는 그냥 지나도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전 대체목이 기념물인지 알았어요. 고사목이 기념물이라면 식생의 의견을 받을 이유는 별로 없죠.

○ 000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이분들도 잘 알고서 높이는 짝 뺐어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층고를 2,600까지도 했었어요.

○ 000 위원

저희들이 지금 죽은 나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은 경관문제밖에 볼 것이 없네요.

○ 000 위원

그래서 층고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야지 저희도 뭔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50.8m예요, 예전에 29.7m에서. 제가 층고를 여쭙본 이유가 11층에서 15층으로 4개 층이 올라간 게 아니라, 29.7m에서 50.8m가 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 관해서는 높이에 대한 고려를 이분들이 고민하게 해야지, 저희가 한 층을 없애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높이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높이를 뭘로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 000 위원

법어요. 양각. 저게 지금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낮춰라 마라는 말 못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고 해서, 정 안 되겠다는 답변을 들어도 저희로서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000 위원

예전에는 건폐율이 대지에 딱 차게 있었는데 그것을 비웠는데 예를 들어



서 건폐율이 문제가 아니라 한 동을 더 넣겠다고 저쪽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개방감이 없이,

○ 000 위원

물론 이게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고민스럽겠죠. 예컨대 이런 거죠. 여기를 이렇게 다 날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쪽에 보인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을 예컨대 조금 더 낮추고, 어차피 사람 시야의 레벨 이니까. 이것을 조금 낮추고 어디를 터준다든가 다른 계획안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통풍 문제 때문에 가운데를 벌려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도시적인 맥락에서 여기를 조금 낮추고 틈운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해주면 어떨까. 그래야지 건축물분과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지, 저희가 뽕나무 식재하라고 이렇게는 못하죠.

○ 000 위원

그러면 7.5m에서 27도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고사목이 문화재라면. 더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7.5m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 000 주무관

예. 7.5m로 시작합니다. 시지정문화재. 대지경계선부터 해서.

○ 000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다 통과한 거죠?

○ 000 주무관

아마 다시 가야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야 될 겁니다.

○ 000 위원

어차피 거기서도 잘릴 거예요. 저렇게 fully 할 수 없어요. 계획안을 한 번 고민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러면 뭘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어요? 지금 그쪽 부분을 필로티를 해서 한강 부분이 보이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해야 돼요, 아니면 정반대로 높이를 내리라고 해야 돼요? 높이 내리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도 15~16페이지 보면 수정한 (안)이 조금 더 개방적이긴 하죠.

○ 000 위원

특히 17페이지 보면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한강을 막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톱워냈거든요.

○ 000 위원

이 교수님은 층고에 대해서 너무 높다 이 얘기시니까.

○ 000 위원

층고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알아서 할 거고.

○ 000 위원

이게 높이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층고를 얘기한 거예요. 양각을 훨씬 높여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식으로 높이 나오면 심지어는 몇 층 잘라라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 사업이 엮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완곡하게 얘기한 건데.

○ 000 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000 위원

경관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진다고 봐야죠. 문화재위원회에서 경관만 가지고 걸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 000 위원

저도 그 생각인데, 그 옆에 뽕나무거리 그것은 자문을 잘 받아서 해라.

○ 000 위원



아까 의견은 했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높이 조정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 000 위원장

그럼 보류네요. 보류의 사유를 명쾌하게…

○ 000 위원

기념물적인 가치는 인정이 되며, 양각규정이 높이가 상당히 많이 초과하므로 높이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 000 위원장

그럼 부결이 됩니까?

○ 000 위원

양각을 지금 거론하면 다음에는 우리가 빠지는 그게 유도리가 없는데. 1층, 2층 낮춘다고 양각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말이죠.

○ 000 위원

양각을 벗어나도 문화재청에서 예전에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 000 위원

그러니까 양각을 너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 000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기준이 이것밖에 없는데 양각은 얘기를 해야죠. 문화재청에서도 그때 담장인가 넘었어요, 양각을. 그때 오피스텔인가 뭔가가 들어왔는데 아주 많이 초과해서 타협해서 몇 층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해준 적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야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 000 위원장

그럼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부결이죠?



○ 000 위원

당연하죠. 보류이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는 건데. 새 (안)을 갖고 오라고 할 때는 부결을 해야 새 (안)을 갖고 오지 않나요?

○ 000 위원장

부결사유는?

○ 000 위원

양각이죠.

○ 우동식 위원

다른 건 뭐 없어요? 한강의 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 000 위원

잘 보이기 위해서 5m짜리 필로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 000 위원

‘문화재 주변 높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그렇게 얘기하시죠.

○ 000 주무관

‘문화재 주변에 따른 높이 재검토가 필요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부결하고 ‘문화재 주변에 따른 높이 재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 000 위원장

예.

(용역관계자 등 입장)

○ 용역관계자5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명원민속관 옆 건축물 증축공사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국민대학교 1캠퍼스가 있고 이게 2캠퍼스인데 2캠퍼스 내에 있는 장교동 한규설 가옥 옆에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있습니다. 두 동을 증축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강의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동 한 동을 증축하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전경은 이 부분이 한규설 가옥이 있고 이 부분이 현재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 부지입니다. 장교동 한규설 가옥은 조선 후기에 한성판윤을 지낸 한규설의 저택인데 189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 000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규설 가옥은 여러 번 와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용역관계자5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이 부분이 새로 증축하려는 부지입니다. 이렇게 부지단면을 끊었을 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한규설 가옥이고 이게 새로이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입니다. 한규설 가옥에 있는 레벨에는 1개 동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고, 그 밑에 지하 부분에 건축물을 형성해서 주변 환경이 너무 매시브하지 않게끔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지현황은 한규설 가옥 그 옆에 대지들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존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옹벽으로 해서 깊이 파져있는 형태입니다. 증축되는 건축물을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기존의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매시브한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한규설 가옥에 한옥의 개념을 많이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건축물들을 기존에 있는 한옥이 분산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분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외부공간들을 많이 형성시켜서 기존에 있는 한규설 가옥을 조화롭게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한규설 가옥 옆에 조감도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건물군들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어우러지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보고서에 보면 조감도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렌더링을 디테일하게 해서 넣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도를 보시면 방금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별개 동으로 계획을 해서 각자의 마당들을 형성시켜서 오픈 공간을 많이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옥의 개념과도 같이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민속문화재 레벨과 같은 레벨에 있는 평면도입니다.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건축상으로는



이게 지상 1층이긴 한데, 위에 레벨보다 밑에 레벨에 맞춰서 이쪽 공간으로는 레벨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층이고, 이것은 밑에 있는 별도 어린이집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 동으로 동 평면만 보기 쉽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외관이나 자재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어우러지게끔 무채색의 천연자재인 석재하고 벽돌로 계획을 해서 기존 건물과도 상충되지 않게끔 그렇게 자재계획을 했습니다. 이 레벨이 전체 지형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배치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단면도에 보시면 이게 원 지형선인데 원 지형선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미 많이 굴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굴토량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횡단면도, 종단면도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원지형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마당을 넓게 형성하게끔 진행했습니다. 건축의 단면 디테일입니다. 지반조사를 했을 경우에 1.5m 내외로 매립층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1.5m 풍화암층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 연암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반은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굴토계획은 아무래도 문화재와 가깝다 보니까 문화재에 영향이 최대한 가지 않도록 흙막이 공법이라든지 지보 공법을 선정할 때 가장 강성이 강한 CIP 공법이나 차수를 할 수 있는 ROD 공법을 선정해서 최대한 지반에 영향이 안 가도록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측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크랙게이지라든지 건물경사계, 진동측정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면적으로 굴토공사 시나 건축공사 시에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지하 굴착선이 가장 가까운 데가 몇 m예요?

○ 용역관계자5

문화재와 가장 가까운 곳은 4m입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교육시설의 주된 출입구를 그쪽 편으로 쓸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거예요?

○ 용역관계자5

네.

○ 000 위원

어린이집은? 주출입구 아래 레벨이에요?

○ 용역관계자5

예.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로 여기가 주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그쪽에서는 그 건물이 지상 몇 층이 됩니까?

○ 용역관계자5

이게 지금 지하 1층 평면도이고요. 지하 1층으로 출입을 하고 있고요. 지상으로는 2개 층이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봤을 때는 지상에서 노출되는 부분은 1개 층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오른쪽 건물에 지상부 바닥레벨이 98.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98.2가 문화재 쪽에서 보면 어디랑 겹치는 거예요?

○ 용역관계자5

98.2는 가장 높은 구간이고요. 이게 98레벨, 그다음에 97.8레벨인데 명원민속관이 97.8레벨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97.8은 대략 맞출 수 있다?

○ 용역관계자5

예. 지금 이 입구하고 이 마당하고 이 입구레벨이랑 이 마당레벨이랑 같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이 맞추는 겁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올라가는 지붕 높이는 얼마나 올라와요?

○ 용역관계자5

경사지붕이다 보니까 가장 꼭짓점으로 올라온 것은 약 5m 가까이 올라갑니다.

○ 000 위원

23쪽 좀 보여주세요. 마치 한 층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옹벽처럼 해놨기 때문에 탑부만 한 층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하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법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게 법률적으로는 지하층일 거예요. 계산은 그렇게 하셨겠죠. 거기가 지금 완전히 옹벽처럼 보여서 1개 층이라고 보기에 부담스러운데다가, 22쪽 좀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전통건축물하고 조화롭다고 하는데, 심미적인 거야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글썬요, 저는 이게 중국 건축물 같아서.

○ 000 위원

저건 용도가 뭐예요?

○ 용역관계자5

지금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게 3개 동인데 여기는 세미나실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동이랑 방재실로 쓰이는 동이랑 이렇게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옆에 공간이 얼마 안 되는데 지하는 건축물 면적이 상당히 넓네요. 실제 그 공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엄청 큰 건물이 들어서네요.

○ 000 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건축사 분이세요? 이거 설계하신 분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용역관계자5

예. 설계자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건물의 형태에서 오는 감이 우리 전통적인 한옥하고 너무 달라서. 그것을 고려해서 재료나 색상을 선택했을 텐데.

○ 000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하고의 거리인데 거기 굴토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하고, 15페이지 보시면 아까 22쪽에 있던 외관의 그런 문제하고 여기에서 봤을 때 맨 오른쪽에 도로 레벨이 있잖아요. 도로 레벨이 97.7, 그다음에 여기로 쪽 올라오면 98.5. 그러니까 한 1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관계자

도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터널처럼 곧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도로는 터널처럼 통과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 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고가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 000 위원

그러면 내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굳이 이것을 문화재하고 이 건물하고 독립시켜서 들어가는데 거기를 오른쪽에 한규설 가옥 담장이 있고 행랑이 있고, 그럼 이쪽에도 뭔가 그런 것으로 차단을 해주면. 거기에 양쪽으로 담이 있다 그러면 골목길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동선을 구분하면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조경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해버려서.

○ 000 위원

저는 분리를 해도 인접해있는 연관성이 꽤 있어서, 그것은 분리를 해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용역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

몇 평 이상은 서울시위원회가 심의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 000 주무관

없습니다.

○ 000 위원

왜 여쭙보냐면 이게 맨 처음에 저희 학교가 성북구라서 이게 저한테 왔어요. 한 세 분한테 갔을 것 같은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서 세 사람이 판단해서 안 되니까 서울시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 000 위원

원래는 위원회에 안 올라올 건이 올라온 거예요?

○ 000 위원

안 올라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 000 주무관

허용기준 발표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21일 날 각 문화재별로 허용기준을 했어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심의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허용기준이 없으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 심의를 하고 영향이 없다고 하면 심의를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고 해서 허용기준을 고시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번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허용기준 고시합니다.” 라고 했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 000 위원

좌우간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외관이 너무 분위기가 안 맞는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굴토하는 그게 문화재 경계선하고 너무 가까워서 3명 정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저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냈어요.

○ 000 주무관

회의자료 21페이지 보시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작년에 이 분과에서도 설명을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작년 12월 21일 날 개별 문화재별로 허용기준을 고시한 거죠. 그것에 따라서 심의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겁니다.

○ 000 위원장

지상에 올라와 있는 건물 형태가 문화재하고 너무 대조적인데다가 또 우리나라 건물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부결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000 위원

지하층에 있는 규모도 그렇고 외관 형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배치도 사실 걸려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치관계도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 000 위원

이제까지 오랫동안 설계해온 거라서 전반적인 재설계는 힘들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설계를 많이 해보셨지만 단시간에 한두 달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라와 있는 지상부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부 정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어떨까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상부 건물 형태 외부공간 구성이 문화재와 너무 다르고,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경관적인 조화’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지하도 보니까 평면 구성한 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흠 하며 방 만든 이게 학생들이 해도 일주일이면 이런 건 만들지.

○ 000 위원

같은 건축사지만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하지만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국민대에서 오케이했다는 게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 000 위원

교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시설과에서 바로 하니까.

○ 000 위원

면적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 000 위원

엄청 크다니까요. 실제 공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터파기해서 아까 말한 4m면 너무 가까이 하면 안에 영향이 안 갈까?

○ 000 위원

그것도 얘기하죠. 너무 가깝다. 그래서 공사 중에 문화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그렇게 두 가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걸 게 없어요.

○ 000 위원장

예. 부결. 부결사유.

○ 000 주무관

경관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 000 위원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필요하고, 지하구조물이 문화재와 너무 가까워서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두 개 층, 피트까지 하면 10m 이상을 파는데.

○ 000 주무관

부결하고,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경관적인 조화가 필요하고 지하구조물이 문화재와 가까워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정리할까요?

○ 000 위원

지상 구조물. 지하는 굴착 공사에 대한 얘기고. 지하공간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 없어요.

○ 000 위원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영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공사 중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지하공사 중에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 그것 하나하고, 지상에 올라와 있는 게 경관이,

○ 000 주무관

경관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2번은 지하 구조물이 문화재와 가까워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000 위원장

예.

(전문위원 입장)

○ 000 팀장

다음은 심우장 사적승격 신청 관련 건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성북구에서 사적지정 신청이 들어왔고, 5월 달에 위원장님하고 000 위원님, 000 위원님이 현장조사를 거쳤는데 건축적인 가치로만 사적지정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 역사성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뒤에 와계시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인천대 국문학과와 000 위원님하고 국민대 사학과와 000 위원님 두 전문 위원님께서 역사성을 밝히는 작업을 하셔서 현장조사 결과 사적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자세한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000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000이라고 합니다. 한용운의 거주공간이었던 심우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점들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지점에서 심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지정사유 여부에 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심우장이 한용운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이라는 사실은 일반대중이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의 위상이라는 것은 저도 독립운동사 전공자이지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또 심우장 시기의 한용운의 활동. 심우장은 한용운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은 아시다시피 3.1운동 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고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시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만해가 심우장에 거주하고 있던 시기가 전시체제기의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버텨낸 공간이 심우장이라는 점도 평가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일단 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점을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의 위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의견이라기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평가되는 지점을 제가 이야기해봤는데요. 33인 중의 1명이라는 것은 당시 대표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33인 중에서도 공약 삼장을 기초했고, 해방 직후에, 제가 어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1946년에 해방되고 첫 3.1운동 기념행사에서 두 명이 주로 언급되는데 손병희하고 한용운입니다. 그럴 정도로 3.1운동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1962년에 우리 정부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을 내릴 때 1962년에 사실상 첫 훈격인데 이때 한용운 선생이 포함되고 그때 대한민국장, 그러니까 훈격으로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마는 최고 훈격인 대한민국장 현재까지 서른 명입니다. 한용운 선생에게 대한민국장이 추서됐습니다. 심우장이 건립되고 한용운 선생이 숨을 거두



시던 1933~1944년은 최고의 전시체제기였고 변절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일일이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항, 기개, 지조를 한용운이 상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심우장과 연결되어서 평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심우장과 만해를 떼고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이 역사적인 활동공간으로서 심우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한용운은 아시다시피 승려이고 문인이고 교육자고 사상가고 독립운동가인데, 그중에는 불교계의 지식인이죠. 그리고 중앙불교전문, 혜화전문, 지금의 동국대로 넘어오는 그 공간이 지금 중앙고등학교 경신 옛날 과학고등학교 거기에 산 하나를 두고 앞뒤로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인과 지식인들의 왕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이 저작물들이 사실상 심우장이라고 하는 공간과 만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상상력이 부여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훈 조동탁, 조지훈 선생의 글에서도 그게 굉장히 잘 남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지훈 선생은 혜화전문학교를 나왔습니다. 조지훈 선생의 글에서 보면 만해에 대한 아주 깊은 존경심과 일상에서 만났을 때 만해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나서 심우장에 대한 실제적인 기억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런 콘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독립운동가에서 안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일송 김동삼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1937년에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분의 장례를 심우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만해와 김동삼은 직접적 연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던 만해가 독립운동계의 큰 어른 돌아가셨는데 유해가 버려져있는 것 용납할 수 없다는 독립운동가의 대표적 자존감으로서 본인이 직접 모셔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이게 독립운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공간적 특징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 현장이 심우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독립운동 현장으로서 심우장을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적과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적 중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적이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 관련해서 사적 지정된 것이 1972년 10월 14일 날 예산의 충의



사와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열사 유적인데요.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산 충의사의 윤봉길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훈격에서 대한민국장 서른 명 중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엄밀한 공헌 평가에서는 독립장이어서. 훈격이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쪽 나가거든요. 뒤에 별첨자료에 훈격 별 분표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지점입니다. 유관순의 상당히 많이 복원된 천안의 유적도 사적이 됐는데, 대한민국장까지 받은 만해 심우장은 어떨까. 저는 제일 먼저 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몇 가지 유적들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제가 요 며칠 사이 생각을 한 건데요. 1972년은 국가주도적인 관점에서 사적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화장이나 경교장 이런 곳들이 사적 지정이 됐습니다. 만해는 일반 시민이고 같이 소통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뚜렷한 지도자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맥락에서, 만약에 만해의 심우장이 지정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맥락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 며칠 사이에 하게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향후 전망을 해본다면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재 사적들은 생가나 무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립운동가가 살고 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생활공간이고 그런 장소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성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고택들이 상당히 많이 고초를 겪거든요. 사람도 고초를 겪지만 그들이 남긴 집도 소유관계에서나 여러 면에서. 역사재현공간으로서 심우장이 그에 못하다고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년이 100주년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시지탄이지만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성과를 거둔다면 여러모로 좀 더 좋은 일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000이라고 합니다. 저는 000 선생님하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역사적인 부분보다는 심우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당시 1930년대 서울에 식민지 시기에 지식인들의 문화적인 교류의 공간성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주목해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우장이 당연히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가를 했고요. 그 이유를 크게 보시면 네 가지 정도로 나뉘었는데 1930년대 서울 문화지형탐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특히 1930년대 서울 특히 북촌은 지식인의 문화교류 공간이었죠. 문화교류 공간이기도 하고 민족운동의 중심공간이었는데, 심우장이 북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대문 밖의 시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풀이 우거지고 은둔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서울 중심의 문화공간의 이야기들을 빨리빨리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만해 한용운은 왜 하필이면 이 공간에 ‘심우’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용운이 북촌과 가장 가까운 심우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해서 종교인, 화가인 등 수많은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민족문화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심우장이라는 공간이 1930년대 서울의 문화지형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우장이라는 이 공간이 1933년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이 민족 지조의 공간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큼니다. 1930년대 일제 식민지배가 극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부르짖던 운동가들도, 혁명가들도 대부분이 전향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던 시기인데, 만해 한용운이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 탄압받으면서 변절한 그런 시기에 이 공간에서 또 다른 형태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문화민족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심우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흑풍』이라는 소설도 집필하고 창씨개명도 비판하고 또 김동삼 장군 장례도 주도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유고집도 편찬하는 등 여러 가지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들을 많이 전개하십니다. 이런 부분들로 볼 때 끝까지, 지식인들이 전부 변절하고 좌절하던 이 시기에 심우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민족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 연구는 어떻게 되느냐고 할 때 바로 심우장 시대에 만해 스님이 가지고 있던 교우관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리라 봐요. 왜냐면 만해 한용운에 대한 추억을 글로 남기고 있는 분들, 지식인들의 글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이 민족 지도자로서의 정열적인 활동들이 있었는데

##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데 심우장에 거처하시면서 종교나 사상 이런 것들 다 넘어서 광범위하게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거든요. 최린, 권동진, 오세창, 최남선, 홍명희, 정인보, 이광수, 이극로 거의 대부분 민족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심우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해와 다양한 교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으로서의 중요한 공간성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은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서울의 중심지와 가깝거든요. 그 속에서 왜 만해 선생님이 '심우장'이라는 이름을 걸었을까를 보면 소를 찾는다든 게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1930년 이전에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이라는 게 만해 선생님은 행동파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내세운 독립운동. 체계적이고 민족의 현실을 객관화시켜보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 지식인들이 1930년 이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동지들이 다 떠나가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본인도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은둔하는 형태이면서도 소통을 추구하는 묘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초심을 찾기 위해서 '심우'라는 이름을 짓고 이 공간 속에서 만해 선생님이 다양한 민족문화활동을 벌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심우장이라는 부분은 지식인들이 민족운동에서 좌절한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독립의 새로운 모색을 꿈꾸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러면 1930년 이후에 만해를 비롯한 선각자들, 지식인들이 문화교류를 하면서 독립에 대한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갔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심우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문사항 있나요?

○ 000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갔을 때 건축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국가문화재로 올라갈 만한 것은 안 된다. 역사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나. 그런데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적 가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라서.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역사학자나 문학자나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를 지나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청에 가면 거기는 사적분과에서 하니까 거기에는 아마 역사전문가도 계실 거고,

○ 000 팀장

연도 기준으로 해서 근대건축물분과에서 합니다.

○ 000 위원

그래도 거기에는 역사학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같으면 저희들이 편한데, 시문화재위원회에서는 건축분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안에 역사학자가 없으니 저희들이 모셨던 겁니다. 덕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퇴장)

○ 000 팀장

사적분과로 갈지 근대건축물분과로 갈지 그것은 문화재청하고도 논의해볼 텐데,

○ 000 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은 근대분과로 갈 성질이 아니고 사적분과로 가야 맞는 거지.

○ 000 팀장

그런데 근대문화재과에서는 이것을 근대사적으로 지금. 시기 구분을 해서 1900년대 것은 전부 근대문화재분과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거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청에서도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설명 따로 하지 말까요?

○ 000 팀장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면적이 지난번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지붕이 약간 담장 밖을 나와 있다 해서 현장을 나가보니 옛날 도면으로 앉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담장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담장 기저부로 해서, 사유지가 앞쪽에 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성북구에서 매입을 한다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청에 올리는 것을 심의하는 거죠?

○ 000 위원

그렇죠.

○ 000 주무관

그러면 결과는 상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서 상정.

○ 000 위원장

예.

○ 000 팀장

다음은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난번 69건 심의할 때 000 위원님께서 4건은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65건 중 10건은 보호구역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예고를 나갔는데 별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면 10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55건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 10년 전하고 보호구역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4건 추가 조사한 것 중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서 3건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기존 도면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사유지가 있는 관계로 3건은 현상유지로 됐고요. 1건은 심우장 건인데 이것은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님들 현장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담장 끝 기저부 외곽선을 보호구역 라인으로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올려서 거기에서 사적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바로 되는 거고, 만약에 사적이 부결되면 시 보호구역은 확대해서 심의예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용역관계자 등 입장)

○ 동작구청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교육문화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용양봉저정 학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이소건축 대표이신 000 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 용역관계자6

안녕하십니까. 이소건축 000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현황, 시굴조사 결과보고, 정비계획 기본방향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거 저희한테 세 번째쯤 말씀하시는 거니까 새로 바뀌신 것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역관계자6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용양봉저정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고요. 대상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문화재는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제6호 용양봉저정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현재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고요. 현재 추진된 것은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자문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지 사진만 한 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용양봉저정이고 작년에 2017년에 기초학술자료 조사에서 노량행궁의 주요 정각인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석재들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1, 2차 자문의견서의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자문에서는 굳이 복원개념을 건물복원이나 이런 것들로 제한하지 않고 시각을 다각화하여서 정비계획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용역에 집중할 것과 그리고 용양봉저정보다는 노량행궁 터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굴결과 다수의 석렬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너무 극소량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정확한 추정을 하기는 힘들어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자문의견에서는 지금 현재 용양봉저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토지매입이 매우 중요한 상태인데, 이런 토지들을 다수 일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계획을 세우고 발굴계획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같이 발맞추어 진행할 것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량행궁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학술조사도 필요한데, 이러할 경우에는 굳이 건축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변과 연계된 역사문화적인 환경, 근현대의 변화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을 향후에 언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굴조사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맨 아래층에서는 풍화암반층이 나와서 현재 건물이 별도의 지정 없이 바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 위에 순서대로 조선시대, 일제시대, 근대 해서 각각 성토층에서 나온 유구들로 시대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기록화하고 현재 트랜치를 넣은 부분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놓고 그 위치를 표시하였는데요. 붉은색 네모로 된 부분이 주요 석렬들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에서 가로로 길게 된 부분에서 석렬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기록화를 보시게 되면 용양봉저정 앞으로 계단에서 길이 있고 산문, 그리고 배다리 로 이어지는 긴 축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축에 길로 추정이 되는 일부 유구들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부 구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을 추정하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굴조사 결과 알게 된 좋은 사항은 1m에서 는 많이는 2m 이상씩 성토가 된 상태이고 노량행궁 터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는 특별히 지금 지하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발굴을 진행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유구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구들을 보게 되면 기와 외편의 경우에도 18세기 전으로 해서 노량행궁이 조성되었던 시기로 추정되는 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자문의견은 시굴조사에 대한 자문의견을 별도로 보았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축물의 자리는 원위치인 것으로 추정되고, 나와 있는 석렬들은 다수지만 이 석렬들에 단언을 하기 힘들므로 정밀발굴을 더 할 것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자료 분석 부분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라 제가 바로 넘어가면서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석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다시 보았고요. 이번에는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동작구청 내의 문화유산이나 근현대 역사자원을 연계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화 같은 경우에도 시굴조사 결과하고 추가적으로 근현대 자료 사진들을 더 확보해서 용양봉저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변화하는 근현대 과정들에 대한 것도 비교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문 중에 조선시대 서울 한강 누정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누정뿐만이 아니라 누정이 있었던 입지, 수계, 지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였고요. 이번에 지형도나 지도 그리고 도로가 생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번에 판독해보니까 용양봉저정이 어느 순간 지형도에 묘로 표시가 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효사정 같은 경우에는 한강신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변 지형과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고증자료가 되고 있는 6개의 기록화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것은 문헌에서 노량행궁에서 불이 한 번 났었는데 그 이후로 부석 전각들을 용양봉저정 남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었는데요. 이것들은 지난번 전차 용역에서 확인한 간 가도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북쪽에 있던 정각들이 나중에 이렇게 후대에 가서 뒤에 남쪽 부분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해서 기록하고 실제 기록화하고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는 지금 건물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구요. 이런 것들은 유길준에게 하사됐을 때 토지조사부를 확인하였고 소유관계를 확인한 것이고, 그 당시에 어진을 모시고 용양봉저정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묘로 표기가 됐던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황색 부분이 현재 용양봉저정이 있는 해당 문화재 필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필지 자체도 지금 국유하고 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분으로 되어 있고, 노량행궁 터로 추정되는 노란색 부분까지 모두 함께 지분으로 국유와 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재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모두 다 매입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작성해서 동작구청에 제출한 상태고요. 이 옆에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만약에 노량행궁으로 정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동작구청 측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편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은 노량행궁 터가 아닌 옆에 별도로 하기 위해서 마련 중인 필지입니다.

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문화재청에 고시된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참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되는 범위는 노량행궁 터로 보이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옆에 녹색 부분은 더불어서 동작구청에서 나중에 추가적인 시설들을 수용하는 필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었을 때 단기는 2021년까지로 잡았고 중기계획은 2025년까지로 보았고 장기계획은 그 이후로 보았으나 사실상 장기계획은 실효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단기적인 것에서는 토지매입이나 발굴, 유구, 그리고 노량행궁에 대한 사적지정 신청 등을 보았고요. 용양봉저정 건물 자체는 지금 상당히 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를 위해서 해체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나중에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해당 정비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들만 특별히 장기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량행궁 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나 사료 부분 그리고 경관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을 강화할 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기계획으로 넣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구축이나 활용에 대한 것들은 단기계획



후반에서 중기계획에 걸쳐서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출되는 유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가를 설명드리자면 유구를 복원한다거나 재현한다거나 하는 것은 최대한 사양을 하고요. 노출되는 유구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출정비를 해서 교육적인, 전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번 기본방향 수립 중에서 내용을 조금 더 조사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추진일정이 10월 31일이 용역 완료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종 자문회의를 거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드리는 것을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000 위원

그런데 종합정비계획 이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에서는 연구는 안 합니까?

○ 용역관계자6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주변에 다른 동작구청에서 개발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실제 가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 용역관계자6

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는 동작구청에서 전면에 용양봉저정을 가리고 있는 일반건축물이 노량진 현장사무소거든요. 그 현장사무소를 내년엔 철거하고 전면에 있는 고가도 철거할 예정에 있어서 용양봉저정 자체의 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어디 고가가 철거 예정이예요?



- 용역관계자6  
용양봉저정 전면에 보면 고가가 가리고 있거든요.
- 동작구청 담당자  
그 고가가 2020년에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 000 위원  
효사정 쪽에서 지나가는 길? 공항 쪽으로 넘어가는 길?
- 용역관계자6  
예. 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 000 위원  
바로 앞에 있는 동사무소 있는 건물도 내년에 철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 용역관계자6  
예. 내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 동작구청 담당자  
저희 구비로 10억 5,000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 철거해서 뭘로 해요? 공원으로 해요?
- 동작구청 담당자  
우선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철거계획만 있습니다.
- 용역관계자6  
일단 거기도 저희가 가봤는데 지하시설물이 거의 없어서요. 그리고 거기가 현재 성토된 높이가 2m 50 정도가 성토되어 있어서 지하가 거의 훼손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트랜치를 넣어서 확인했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관계자 등 퇴장)

○ 000 주무관

의견 따로 주실 것은 없으신 거죠?

○ 000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의견 드릴 것 없죠?

○ 000 위원

자문위원들이 다 붙어서 하고 있으니까.

○ 000 주무관

‘보고 내용대로 정상 추진하기 바람’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지난 두 달은 너무 더웠는데 오늘로 끝날까 했더니 며칠은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제7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오늘 3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823/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